

보도시점 2024. 1. 7.(일) 12:00
(2024. 1. 8.(월) 조간)

배포 2024. 1. 5.(금) 09:00

흩어진 국가 나노팹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! MoaFab 서비스 개시

- '24.1월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(MoaFab) 시범운영 실시
- '24.3월 나노종합기술원, 한국나노기술원, 나노융합기술원 본서비스 개시
- '24년 하반기, 전자통신(연), 서울대,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서비스 확대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이종호, 이하 '과기정통부')는 기관별로 산재된 국가 나노팹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한곳에 모아, 팹 이용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'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(이하, MoaFab)'을 '24년 1월 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.

MoaFab은 나노팹 간 연계·협력을 기반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, 팹 이용자 관점에서 ▲ 팹 서비스 신청·관리 일원화, ▲ 신청서비스 진행현황 실시간 모니터링, ▲ 예약 시간 추천 서비스, ▲ 팹 기관 장비 정보 제공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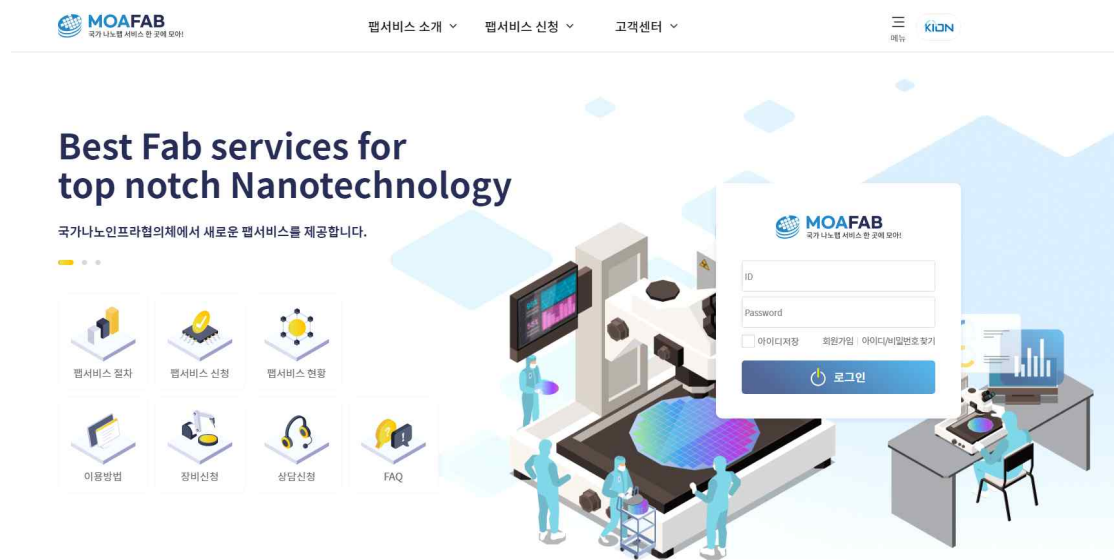


[MoaFab (www.moafab.kr) 체계도]

또한, 나노팹 기관 입장에서는 ▲ 팹서비스 공정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, ▲ 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서비스 조회·처리 기능 ▲ 나노팹 기관 간 공정 연계 서비스 기능 등을 제공받아 나노팹 운영의 효율성과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
MoaFab(www.moafab.kr)은 '22년부터 참여 예정 기관 간에 나노팹 간 데이터 표준화를 실시하고,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 서비스와 기관 팹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. '24.1월부터는 1단계 서비스 대상기관인 나노종합기술원(NNFC), 한국나노기술원(KANC), 나노융합기술원(NINT)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. MoaFab 시범운영 참여자에게는 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다.

3개 기관 시범운영이 완료되면, '24.3월에 1단계 본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며, '24년 하반기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(ETRI),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(ISRC), 대구경북과학기술원(DGIST)로 서비스가 확대된다.



[모아Fab 홈페이지]

이후에도 과기정통부는 대학, 연구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나노팹 시설들의 MoaFab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며, 보다 더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산·학·연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.

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“MoaFab 서비스가 개시되면 전국의 나노팹을 한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이용자들의 팹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, 그간 어려웠던 팹간 연계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될 예정”이라며, “MoaFab 서비스가 우리나라 반도체, 나노 기술 등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기초원천연구정책관 원천기술과	책임자	과 장	이은주 (044-202-4540)
		담당자	사무관	이상현 (044-202-4541)
시스템 담당	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	담당자	사무국장	이경엽 (042-862-9121)
		담당자	전 임	김종석 (042-719-9131)

